

새로 태어나는 대학특허

- 대학보유특허 기술이전 활성화 계기 마련 -

정부는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 (2001.12.31)을 개정하여 국·공립대학의 직무발명을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으로 이전하여 특허권 등을 관리·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충남대학교가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재)충남대학교산학연교육연구재단(법인명)이라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설립하여 그 동안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국유특허 22건을 지난 1월 28일 이전하였다.

(재)충남대학교산학연교육연구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교수의 직무발명은 법인에 승계되며, 실시보상금 지급은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액의 50%를 발명자에게, 10%는 발명자의 소속 부서, 40%는 법인에 배분되도록 하였다. 또한, 교수가 퇴직한 후에도 보상금 권리는 계속 유지되며 사망시에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학교에서도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재)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2003.1.9)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대학교의 국유특허 19건을 조만간에 이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국유특허가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이전됨에 따라, 특허기술이전으로 인한 로열티 등 수익이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대학의 연구비 재창출로 이어져 대학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특허청에서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기술혁신 순환구조(연구개발 → 기술이전·사업화 → 채투자)가 구축될 수 있기 위해서, 국유특허를 포함한 우수한 특허기술을 발굴·전시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시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이전에 대한 용자 자금 (13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보도자료 중에서>

2003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사전등록 안내

2003년 춘계 학술대회 사전등록에 관한 안내입니다. 발표자 (구두 발표자, 포스터 발표자)와 공동발표자는 반드시 회원가입과 학술대회 등록을 하여야 발표가 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춘계학술대회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2003년 3월 25일(화)까지 홈페이지 (www.polymer.or.kr)에서 회원 로그인을 하시고 사전등록비 (정회원 40,000원, 정회원중 대학원생과 학생회원 20,000원)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간친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등록비 납입시 “간친회참석”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친회비의 추가부담은 없습니다.